

# 익산의 여름은 즐길거리로 '풍성'

시, 캠핑·중앙동 치맥페스티벌·야간경관·대학생 농활·공연·물놀이 등 마련

무더운 8월, 다채로운 즐거움이 있는 익산이 여름 여행지로서의 면모를 뽐내고 있다.

익산시는 낮과 밤을 모두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여름 여행 상품을 준비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 밤 야간관광지가 관광객의 발길을 끌 어당긴다. 더위로 잠 못 이루는 야간 에 개방하는 고즈넉한 관광지를 찾는다면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 보석박물관, 옹포곰개나투가 기다리고 있다.

미륵사지와 왕궁리유적은 은은한 조명과 함께하는 문화유산과의 야간 산책지로 잘 알려져 있다. 옹포 곰개 나투는 숲속 부는 강바람을 맞으며 바라보는 낙조가 아름다운 명소다. 최근엔 이에 더해 새롭게 야간경관까지 보강했다.

절기상 '말복'과 공복절인 8월 14~15일에는 아름다운 풍광 속에서 야외활동을 즐기는 이들을 위한 행사 '말복엔 닭치고 익산이 마련돼 있다. 1박 2일 동안 옹포 곰개나투 캠핑장에서 삼계탕을 먹고 게임으로 재미를 줄 수 있는 특별한 행사다.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인기를 끄는 보석박물관관단지 역시 밤을 밝히는 '빛 그리고 음악과 함께 걷다'라는 테마로 조성된 야간경관이 여름밤 어둠을 밝힌다.

올 여름부터는 매일 마지막 주 금요일에 출발하는 '9경3라 익산여행' 관광상품을 판매한다. 이는 익산을 대표하는 백제역사부터 농촌체험마을 촌캉스까지 두루 즐길 수 있는 실속 있는 익산여행 관광상품으로 현재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익산발발투어도 9월 미륵사지 국가유산 미디어아트 기간에 맞춰 사전 신청을 받을 계획 이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농활은 핑 계고'를 통해서 익산 농촌의 저녁 을 즐겨볼 수 있다. 8월에 3박 4일씩 2회차에 걸쳐 진행된다. 오전에는 농 촌에서 부족한 일손을 돕고, 오후에 는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다리로온 시골여행'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다.

8월의 끝자락인 30~31일에는 '2024 중앙동 치맥 페스티벌'이 문화예술의 거리에서 개최된다. 이번 치맥 축제는 익산의 대표 향토 기업인 (주)하림 은 물론 익산에서 시작된 프랜차이즈 (주)다사랑과 지역 명물 '개통닭'을 파 는 남부시장·구시장의 통닭집 여러 곳이 참여한다.

이 밖에도 이리맥주와 하이트진로, 세브브로이 등 다양한 업체가 참여해 시원한 맥주를 공급할 계획이다. 축제 기간에는 다이로움 10% 추가 혜택과 경품 행사도 준비돼 있다.

역사·문화 고도 익산의 매력을 뽐

내는 유쾌한 행사도 있다. 백제왕궁 박물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오락형 체험 프로그램 '백제왕궁 1박 2일 박강 스-여름방학 하룻밤 나들이'를 기획 했다. 오는 9~10일 '백제왕궁박물관 을 찾은 문화의교 사절단'이라는 주제로 참가한 가족들에게 행복한 추억 을 선사할 예정이다.

익산 예술의 전당에서는 △11일 첼 리스트 홍진호, 진호의 책방 △22일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관현악단 '국악콘서트 락' △23~24일 뮤지컬 인형극 빠노키오 △31일 창작오페라 녹두 등을 시원한 공연장에서 관람할 수 있다.

여름엔 물놀이도 빠질 수 없다. 금마 서동생태관광지에 위치한 유아생 태 물놀이터는 아이들 피서지로 제격 이다. 예코캠핑장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만큼 캠핑과 물놀이를 동시에 즐길 수 있어 인기 만점이다. 이 밖 에도 △영등시민공원 △모현공원 △중앙체육공원 △함열돌굴공원 △유천 생태습지공원에서 어린이 풀장을 무 료로 운영하고 있다.

배석희 경제관광국장 직무대리는 "익산에서 열심히 준비한 다양한 여 름 축제와 가족과 즐기는 문화예술 체험활동, 다채로운 행사를 맘껏 즐 기는 8월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군산시장, 안전한 여름나기 위한 현장 행정

호우피해 특별재난 선포지역·아파트 건설현장 실태 점검 등

폭염특보가 연일 지속됨에 따라 군산시는 7일 폭염 취약계층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위해 무더위쉼터 시설 점검에 나섰다.

이날 강임준 군산시장과 관계 공무원들은 지난 7월8~10일, 호우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나포 면과 성산면에 위치한 원나포경로당 과 참오경로당을 방문했다.

일행은 어르신들의 예로사항을 청취 하고 냉방기 작동 여부, 위생 관리 상 태 및 운영 현황 등 전반적인 운영 실 태를 살폈다.

이날 나포에서는 기후 변화에 따라 여름철 폭염 기간이 길어지는데 반해 냉 방비 지원이 7, 8월 두 달에 머무르고

있어 냉방비 추가지원 건의가 나오기 도 했다.

이에 강임준 군산시장은 "9월분 냉 방비 등은 재난관리기금 등 시 예산을 총동원해 지원할 계획이며 노인복지 관 3곳에 대한 운영 기간도 토요일 하루를 더 늘려 운영해 폭염으로 힘들 어하시는 노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운영질환이 7월말 8월초에 집 중발생하고, 사망자 상당수가 고령 농 업인임을 감안해 폭염경보 등 재난 발 생 시 농업 활동을 자제하고 무더위쉼 터 등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산=이재춘 기자

## 중국 청도시 주얼리 기업들, 익산 방문

보석박물관 관람·주얼리 업체 간 교류회·제조 시설 견학 등

중국 청도시 주얼리 업체들이 한국의 주얼리 디자인 트렌드 파악과 선진 제조기술 견학을 위해 보석도시 익산 을 방문했다.

7일 익산시에 따르면 청도시 주얼리 업체 44개사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익산 주얼리 산업을 견학하고 기업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 졌다.

이번 방문은 청도한국인상회 주관으 로 이뤄졌으며, 청도시 성양구 설립 30주년을 맞아 성양구 발전 성과를 기 념하고 한국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 해 마련됐다.

이번 일정은 국내 유일의 보석관련 국립박물관인 보석박물관 관람과 주얼리 업체와의 교류회, 제조 시설 견 학 등으로 이뤄졌다.

먼저 지난 6일 보석박물관을 방문해 '테마가 있는 공간 계절 색' 특별전을 관람했다. 8만 1000개의 천연 루비 '용의 심장'을 관람한 청도 주얼리 업 체들은 일제히 천연 루비에 대한 경탄 을 쏟아냈다.

7일에는 예술의전당 세미나실에서 익산과 청도 주얼리 제조업체 대표들



이 교류회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주얼 리 산업 상호 협력과 지속적인 동반 성장을 약속했다.

이어 삼기면 패션주얼리공동연구개발센터와 주얼리 제조업체의 공장을 방문했다. 익산시의 주얼리 산업 기반 시설을 견학하고 효율적인 제조 공정 과 품질 관리 등에 대한 노하우를 공 유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을 방문해 주신 청도시 주얼리 업체들을 환영한 다"며 "이번 기회를 계기로 양국의 주얼리 산업 경쟁력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 익산시, 악취상황실 24시간 운영... 상반기 민원 34% 감소

정현을 시장, 악취상황실 방문... 악취측정차 탑승해 현장 점검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현을 익산시장이 저감 노력에 대한 효과를 체감하기 위해 직접 현장으로 나섰다. 7일 익산시에 따르면 정현을 시장은 전날 오후 팔봉동에 위치한 악취상황실을 방문했다.

먼저 정 시장은 상황실 악취 감시 시스템을 통해 실제 배출 상황과 민원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이어 정 시장은 악취 측정차에 올라타 순찰에 나섰다. 악취 측정차는 익산 제1·2산업단지와 환경 기초시설, 중계펌프장, 왕지령야 일대, 동산동·마동·영등동·부송동 등 주요 지점을 돌았다. 순찰이 진행되는 동안 악취 성분 분석과 악취 시료 채취 시연이 이뤄졌다.

앞서 익산시는 쾌적한 도시를 조성 하겠다고 '악취와의 전쟁'을 선포한 바 있다. 실제 지난 상반기 악취 민원이 지난해 대비 34% 저감되는 성과가 나타났다.



모든 민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고군분투하는 '악취상황실'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시는 악취 민원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5월부터 10월 까지 24시간 악취상황실을 운영하며 관리하고 있다.

악취 상황실 근무조는 3인 1조로 전문 인력과 유관부서 합동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별도로 축산악취 상시 감

시반을 따로 편성해 상시 감시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상황실에서는 신고 지점 인근부터 바람 방향을 역추적해 악취 발생 지점을 특정하면, 곧바로 현장 확인을 통해 의심 지역의 악취 성분 물질을 분석하고 차단에 나서는 방식이다.

상황실은 전년 대비 악취 민원 20% 감축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기상 상황에 따라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해 야간 조업 사업장을 점검하고, 도심권 과 마을에 인접한 축사를 집중 관리하 는 등 사전 순찰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이번 하반기에 전체 민원의 77%를 차지하고 있는 축산 악취 대응에 최우선으로 집중하고, 사례별 특성과 기상조건에 따른 악취 영향을 조사 하는 악취실태조사를 실시해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 방안을 수립 할 계획이다.

한편 악취 발생 시 익산악취24 앱(ordor.iksan.go.kr) 또는 악취상황실(063-863-8020)로 신고하면된다.

/익산=이재춘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8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